

외국인 203조 팔았다… 반도체 호실적 기대마저 ‘무색’

삼성·SK하이닉스 매도액 87% 줄려
비중 조절 끝나다 6일 연속 ‘팔자’
AI투자 과열·중국 추격에 불안 커져
대만 대비 투자 매력 약화로 복귀 난항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3분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비율 조정)이 끝났고, 원화값도 2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순매도가 이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시장은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합산 6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0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진다. 특히 빅테크들의 투자가 견고해 칩 공급 부족이 최소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무서운 추격과 인공지능(AI)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려면 AI 투자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 회복과 원화 안정,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외인 매도, 반도체 신뢰 추락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에서 4조5411억원을 순매도했다.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03조6000억원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개인은 100조5000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대거 팔고, 개인은 사들이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다.

앞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관 투자자가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원화 강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인 외국인들이 상반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한국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에 3분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줄어든 것이라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팔자’가 계속되는 것이다.

외국인 매도는 ‘셀 반도체’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각각 87조1700억원, 89조2200억원어치 팔았다. 두 종목 순매도액이 외국인 전체 순매도의 87%에 달한다. 두 종목 모두 4월 한 달 순매수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챗GPT-3.5 출시 이후 2023년부터 시작된 AI 강세장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것일까. 시장은 ‘무너진 신뢰’에서 답을 찾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AI 투자에 거품 위험이 있으며, 붕괴할 경우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최근의 AI 투자 급증 속도가 1840년대 영국 철도광풍(4년간 2.7배)이나 1990년대 닷컴 버블(5년간 1.9배)보다 빠르다고 경고했다.

◆코스피 이끌 외국인, 언제쯤?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이날까지 28.80% 급락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

지수는 3.94% 상승했다. 7일엔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에도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피 약세를 ‘거시 경제 탓’으로 돌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AI 관련 유망 투자처로 대만 증시를 꼽았다. 한국 코스피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마땅한 AI 수혜 기업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는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네트워킹·서버 등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크게 집중돼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구심이 커질 경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때 가장 뜨거운 증시였던 코스피에 싸늘한 평기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4~10일 펀드매니저 87명(총 운용자산 2110억달러)을 대상으로 실시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0%가 대만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한국 주식의 경우 25%에 불과했다.

한국 증시의 큰손 외국인의 발길을 돌릴 해법은 없을까. 불안한 원화 강세는 꼭 시장 편만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일 1335.1원으로 약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13일에는 외국인 매도 속에 하루 만에 10.0원 오른 1345.1원으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익의 확산에 대한 시장 확신 여부를 외국인 귀환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에도 수급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삼성, AI 메모리 3대 전략 공개 속도·확장성·영속성 경쟁력 강화

美 OCP 서밋서 차세대 기술 소개
CXL로 AI 메모리 용량 확장 추진
AMD와 차세대 확장 솔루션 시연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기술(IT) 인프라 행사에서 속도와 확장성, 영속성에 초점을 맞춘 새 메모리 전략을 공개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물론 CXL 메모리 모듈, 기업용 반도체디스크(SSD)까지 AI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제품군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심호준 DS부문 메모리사업부 AE팀 상무는 현지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P(오픈컴퓨트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OCP는 데이터센터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설계를 개방형으로 공유하는 협의체로, 글로벌 클라우드 및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AI 인프라 분야 행사다.

AI 모델이 대형화하면서 추론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KV캐시(임시저장키값)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KV캐시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앞서 처리한 문맥 정보를 저장해 재사용하는 데이터다. 이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뿐 아니라 용량 확장과 데이터 저장 기술이 AI 반도체의 핵심 요

소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속도 부문에서는 최첨단 HBM5와 맞춤형 HBM을 준비 중이다. 연산집위에 메모리를 쌓는 zHBM, 간단한 연산을 메모리 안에서 처리하는 PIM(프로세스인메모리)도 함께 제시했다.

확장성 부문에서는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대체 기술인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와 이를 적용한 메모리 모듈 ‘CMM-D(CXL Memory Module-DRAM)’가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영속성 부문에서는 차세대 기업용 SSD 등 최신 스토리지 기술을 앞세워 대규모 AI 데이터의 저장 성능과 용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행사장 전시 공간에 3대 전략의 핵심 제품도 내놨다. HBM5 목업(Mockup)과 웨이퍼 등이 전시됐다. 삼성전자는 또 AMD와 CXL 기반 메모리 확장 솔루션을 공동 시연해, 기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174,000m³급 LNG선 1척
대한민국 1일 LNG 사용량 운송

295.5m

365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에너지

5대양 6대주를 넘어, 거친 파도를 넘어
매일 멈추지 않고 항해하는 천연가스 여정.
국민이 걱정없이 일상을 누리는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없이 자라는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